



‘될성부른 떡잎’ 김청용-박상영-김형규를 주목하라



인천에 뜰 '셋별'은 누구?

박태환(25·서울시청)은 경기도 2학년 에 재학 중이던 2006도하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자유형 200·400·1500m)에 올랐다. 이듬해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400m에서 정상에 오른 그는 2008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국 아시안 게임이 '마린보이'가 세계 정상에 오르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도마의 신' 양학선(22·한체대)이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대회 역시 아시안 게임이었다. 광주체고 3학년이던 2010년 광주우대회 기계체조 남자 도마에서 정상에 올랐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2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아시안 게임은 8년 전의 박태환, 4년 전의 양학선처럼 '셋별'들이 등장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신예 국가대표들은 유망주에서 에이스로 비상하길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9월 19일 개막하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선 과연 누가 '제2의 박태환·양학선'이 될까.

고교생 김청용, 남자 권총 진종오 이을 명사수 19세 검객 박상영, 에베 단체전 금메달 도전 복싱 -81kg급 김형규 파워·체력·두뇌 3박자

●‘고교생 권총 신예’ 김청용, ‘제2의 진종오’ 꿈꾼다!
한국남자권총은 전성기를 맞았다. 런던올림픽 2관왕 진종오(35·kt)를 필두로 런던올림픽 남자 50m 권총 은메달리스트 최영래(32·청원군청), 광주우아시안게임 3관왕 이대명(26·KB국민은행) 등 세계적 선수들이 인천아시안게임대표로 선발됐다. 이 가운데는 고교생 총잡이 한 명도 눈에 띈다. 흥덕고 2학년생 김청용(17)이다. 이번 대회에선 남자 10m 공기권총에 도전장을 냈다.

3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아공기총사격선수권 남자 유스 부문 금메달을 목에 걸며 깜짝 등장한 김청용은 대표선발전에서도 경쟁한 선배들을 제치며 파란을 일으켰다. 사격 입문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데다 성실함까지 갖췄다. 사격 선수로는 드물게 왼손잡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왼손잡이선수는 바로 옆 사대의 선수와 마주보고 총을 쏘게 된다. 이 때 상대는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왼손잡이선수에게는 매번 있는 일이지만, 오른손잡이선수에게는 낯선 경험이기 때문이다.

김청용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는 제51회 세계사격선수권(6~20일) 참가를 위해 3일 출국했다. 이 대회에서 모의고사를 치른 뒤 인천에서 금빛 총성을 울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배들과 함께 하는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선 금메달 전망이 밝다.

●‘19세 펜싱 셋별’ 박상영, 남자 에베 단체전 금 도전
한국펜싱은 국제무대에서 신흥강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광주우아시안게임에서 금 7개, 은 2개, 동 5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런던올림픽에



2006도하아시안게임의 박태환.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의 양학선은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2년 뒤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유망주들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사격 김청용, 펜싱 박상영, 복싱 김형규(왼쪽부터)가 그 주인공들이다.



서도 금 2개, 은 1개, 동 3개로 돌풍을 이어갔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전이 기대된다. 특히 남자 에베에선 런던올림픽 개인전 동메달리스트 정진선(30·화성시청)의 뒤를 이을 기대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박상영(19·한체대)이다.

박상영은 2012세계청소년펜싱선수권 남자 에베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후 성인무대에서도 걸출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 1월과 5월 카타르 도하와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국제그랑프리에서 개인전 정상에 섰고, 7월 세계선수권(러시아 카잔)에선 정진선, 박경두(30·해남군청) 등 선배들과 호흡을 맞춰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세계랭킹은 한국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3위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공수의 조화가 돋보인다는 평이

다. 인천아시안게임 펜싱 개인전에는 국가당 2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다. 남자 에베에선 정진선과 박경두가 개인전에 나선다. 박상영은 단체전에 힘을 보태며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방의 사나이’ 김형규, 복싱 금맥 잇는다!
한국복싱은 1986서울아시안게임에서 전 체급(12개) 석권의 신화를 창조했다. 그러나 2002년 부산대회를 끝으로 2006년 도하대회, 2010광저우 두 대회에 걸쳐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라이트헤비급(-81kg)에 출전하는 김형규(22·한체대)는 인천아시안 게임에서 금빛 주먹을 날릴 후보로 꼽힌다. 2011아시안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7월 중국 귀양에서 열린 2014차이나오픈복싱대회에서도 정상에 서는

등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파워, 체력, 두뇌의 삼박자를 갖춘 것이 장점이다.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AIBA)은 지난해 6월부터 국제대회에서 성인남자선수들이 헤드기어를 벗고 경기를 치르도록 결정했다. 채점방식도 기존 '유효타 숫자'에서 '누가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지'로 바뀌었다. 유효타가 적어도 더 강한 펀치를 적중시켰다면 라운드당 10점을 부여한다. 펀치가 뛰어나고, 공격성향을 갖춘 선수들이 유리해졌다. 김형규는 세계복싱이 변화하는 추세에 최적화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아웃복싱과 인파이트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살리겠다.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1986년 서울AG, 육상 임춘애·유도 김재엽·탁구 유남규 '금빛 감동'

■ 역대 아시안게임을 빛낸 선수들

환희와 감동으로 역대 아시안게임을 빛낸 스타들은 누가 있을까.

아시안게임이 낳은 한국 최고의 스타는 1986년 서울대회 육상 3관왕에 오른 임춘애(45)다.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그녀는 800·1500·3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육상의 새 역사를 썼다. 특히 '라면 투혼'으로 더 유명세를 탔다. 다소 과장된 보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당시에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소식이 더욱 진한 감동을 안기며 인간승리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임춘애의 아시안게임 3관왕은 여전히 한국육상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육상에선 임춘애를 비롯해 유독 많은 스타가 탄생



육상 임춘애



유도 김재엽



탁구 유남규

했다. 1986년 남자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장재근(52)과 1970년 방콕대회와 1974년 테헤란대회에서 여자 투포환 2연패를 달성한 백옥자(63)는 '황색탄환'과 '아시아의 마녀'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국민적 스타로 우뚝 섰다.

김재엽(50)과 이경근(52)은 1986년 서울대회 유도 남자 각각 60kg급과 65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스타덤에 올랐고, 유남규(46)도 당시 탁구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탁구의 전성기를 열었다. 특히 유남규는 준준결승에서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중국의 장지아랑을 꺾어 파란을 일으켰고, 그 여세를 몰아 개인전 금메달까지 획득해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유남규는 1988서울올림픽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탁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됐다.

수영에서도 여러 스타가 배출됐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2009년 별세)과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47)가 대표적이다. 고 조오련은 1970년 방콕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한국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다. 최윤희는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 15세의 나이로 여자수영 3관왕에 올랐다. 배영 100·200m와 개인혼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최윤희는 곱상한 외모까지 겸비해 현재의 김연아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편집 | 심승수 기자 ss23@donga.com 트위터@ss23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더 크게! 더 단단! 더 오래!

인체공학과 과학의 접목! '성기능강화용링'
확대·조루·발기력강화 발명특허

영화배우 이동준입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지만 나이는
못 속이더군요.
5년전 코메디언 '한무' 선배님
소개로 '뉴 맨'을 만났습니다.
효과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
'뉴 맨'!! 최곱니다.!!

발명특허 제10-0756243호

대표이사 서영숙

NAVER 뉴맨 www.newm.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60만 남성고객과 60만 여성이 함께하는
'뉴맨'의 효과!!**
왜소하고 빠르다! => 30%이상 커지면서 시간이 연장된다!
힘이 약하다! => 20대때 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진다.
중간에 시든다! => 단단한 강직도가 끝나도 쉬 시들지 않는다.

*제품의 자세한 구성은
뉴맨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핸드폰에서도 주소창에 **newm.kr**만 입력하세요.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환불 **T.1577-5579, 010-7636-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로9길 20 (우연동)
(주)케이엔제이스포츠

평균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